

# 8000 꿈꾸는 코스피... 강세장 지속 vs 시발 조정 우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목표치 상향  
실물경기·주가 괴리 커 조정 의견도  
AI발 경기 둔화·금리 변수 등 주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23일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고쳐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5846.09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9만 3000원(1.53% 상승)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95만1000원(0.21% 상승)에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장중 98만 원선을 터치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커 금리나 실적 등 변수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AI)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 “8000 이상도 가능”

국내의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신디박·이동민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memory)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상향 조정 배경으로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주가 지수 상승을 위해 자본 효율성 개선과 중복 상장 이슈, 가족 중심의 재벌 지배 구조 등의 도

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보다 높다. 하나증권은 지난 20일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연말 코스피 상단 7900을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현재 대비 74.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강세장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JP모건은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 중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던 한국 증시가 올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선호 시장이고, 구조적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진단했다.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7300), 유안타증권(7100)도 눈높이를 올렸다.

◆반도체 편중, 과열 우려

그러나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고용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DB증권은 최근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4500~5500에서 4300~5700으로 조정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진다”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도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휴대전화·노트북 등도 비싸지는 ‘AI플레이션’이 발생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이 또한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는 AI 수익성 논란과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40%가량이 쏠린 상황에서 AI 관련 불안이 생길 때마다 외국인 이 팔고, 개인은 저가에 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코스피 상승 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EQT,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상장폐지 추진 ‘KODEX 증권’ 1년 수익률 293% 기록

성공시 자사주 제외 100% 확보  
투자금 회수 위한 자본 먹튀 의견  
더존비즈온 경쟁력 흠집 우려도

외국계 사모펀드(PEF)로 주인이 바뀐 국내 최대 전자적자원관리(ERP) 회사 더존비즈온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 시장에서는 PEF의 냉혹한 세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생존 여부를 놓고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상장폐지 사례란 점 때문이다.

◆증시 떠나는 더존비즈온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EQT는 23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업체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 전부를 공개매수로 취득해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주식은 약 57.7%이며 가격은 주당 12만원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 기준 공개매수일 직전 1개월, 2개월 3개월 및 12개월간의 평균 증가(거래량가중 평균가격)에 각각 32.6%, 32.4%, 32.3%, 55.3%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수치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고가로,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EQT는 설명했다.

EQT는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전 영업일 증가 대비 25.0%라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소액주주도 최대주주와 동일한 가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더존비즈온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QT는 지난해 11월 더존비즈온 주식 1096만 4909주(34.8%)를 1조 3158억 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김 회장 지분 23.2%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지분 14.4%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235만 4110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EQT는 자사주를 제외한 100%(발행주식의 92.5%)를 확보할 수 있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95%다. EQT가 더존비즈온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총 금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자본 먹튀인가, 시장 논리인가

시장에서는 PEF 등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시도를 두고 굵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상장폐지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외국계 PEF 운용사 에피티에쿼티파트너스가 2017년 인수한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24년 자진 상장폐지했다. 그런데 락앤락은 2023년 18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어도 상장폐지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21년엔 사상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사이에선 PEF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만을 목표로 각종 공시 의무와 책임경영을 회피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쌍용C&E와 제이시스메디칼도 상장폐지 때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쌍용C&E는 국내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제이시스메디칼은 외국계 PEF 운용사 아카데미가 경영한다.

이는 PEF의 구조 때문으로 지적된다. PEF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본을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그것을

배분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익명을 원한 PEF 업계 전직 관계자는 “PEF 운용사엔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PEF 운용사에 ‘기업 사냥꾼’ 또는 ‘먹튀’(먹고 튀다)의 준말) 등 달갑잖은 수식어가 붙는 이유도 그래서다.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ERP업체인 더존비즈온의 경쟁력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홈플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소홀하면서 그사이 급성장한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경쟁 상대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비슷하게 겪은 상황이지만 홈플러스의 디지털 전환이 더 늦었고 타격도 그만큼 컸다. 기업 회상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매대는 비어가고,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운명은 갈림길에 놓였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이자 법정 관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에코마케팅의 상장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국계 PEF인 베인캐피탈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에코마케팅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자산운용, 전체 ETF 중 1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증권’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92.8%를 기록하며,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전체 상장 지수펀드(ETF) 중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연초 이후로도 9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등 기존 주도 업종의 성과를 상회하고 있다.

KODEX 증권 ETF가 이처럼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코스피 5000 돌파에 따른 거래 급증이 꼽힌다.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KODEX 증권 ETF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증권주들을 고르게 편입하고 있다. 연초 이후 개



인 누적 순매수는 1358억 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652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어 전체 ETF 중 개인 매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KODEX 증권의 순자산은 9468억 원에 기록하며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증권 섹터 ETF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주가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하은 기자

## 미래에셋 TIGER 증권, ETF 수익률 1위

연초 이후 수익률 101.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증권 상장지수펀드(ETF)’가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종가 기준 TIGER 증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1.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7.8%) 63.9% 상회하는 성과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증권업종은 국내 주식시장이 리레이팅(재평가) 국면에 진입하면서 대표적

인 수혜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339% 증가한 6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확대에 이어져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등 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